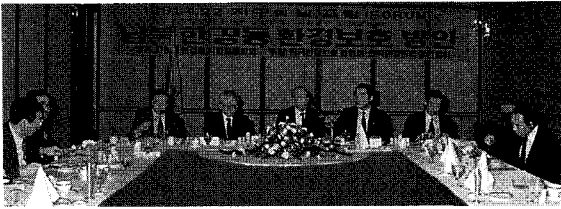


자연과 환경을 위한 공동회의

# 남·북한 공동 환경보호 방안



자연과 환경을 위한 공동회의는 '91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오염과 국제환경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자연, 환경보호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박창근기획·운영위원은 「환경문제만은 환경처 차원의 대책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뿐인 조국이라는 개념에서 남·북한 공동 환경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수질보전학회

#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



한국수질보전학회(회장·홍사옥)는 수질보전에 관한 국제기술정보 교류 일환으로 지난 4월 19일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상수관련 일본전문가와 국내전문가를 초청, 「특별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동북대학교 Sudo Ruichi 교수의 「일본의 폐 하수고도처리와 재이용기술」, 지바현수질연구소 Nakajima Jun 박사의 「일본의 수도수 정수현황과 고도처리기술」 등의 강연에 이어 수도 기술연구소 김 홍석박사의 「국내정수처리현황과 전망」의 강연이 있었다.

환경보전협회

# 대학생 환경논문 경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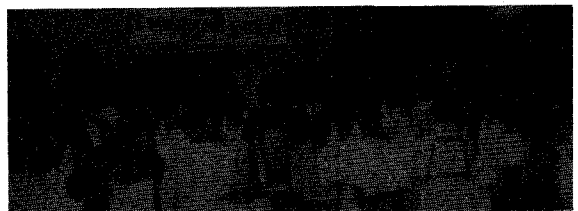


환경보전협회(회장·정수창)는 지난 4월 22일 상공회의소에서 전국 대학생 환경논문 경시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식에서 최우수논문작으로 신용건(강원대, 대학원농화학과 1년) 씨의 「한국의 환경오염 현황과 방지 기술개발 방향」이 선정 되었으며, 우수 논문수상은 송인주(서울대 환경대학원 2년) 씨와 이효민(덕성여대 약학과 박사과정) 씨가 각각 차지, 예전에 비해 논문 내용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환경공업신문

# 창간 2주년 기념행사



환경공업신문(발행인·채우식)은 지난 4월 15일 조선히otel에서 창간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정수창 환경보전협회장, 천명기 전 보사부장관, 이승무 한국폐기물학회장 등 각계 인사 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 날 기념식에서 채우식발행인은 우후죽순 처럼 쏟아지는 전문지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 등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사명감을 갖고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주택공사

# 쓰레기 수거개선 공청회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4월 4일 「아파트쓰레기수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건설회관에서 아파트쓰레기수거방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문제가 사회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바 아파트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한편 동사 최 재필 선임연구원은 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민의 91.6%가 쓰레기 분리 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 서울대 사회정의 연구실천 모임

# 환경문제 공개토론회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위원장·권태준)은 지난 4월 12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환경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에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서해안 개발과 환경문제 및 환경형법의 정비를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폭넓게 다루어졌으며, 환경보전 및 운동에 관련했던 사람들의 체험담 발표도 있었다.

한편 구 영기(환경관리기사)씨는 환경관리기사들의 애로사항, 잦은 이직율, 진급의 어려움, 업무와는 별도의 잡무 등을 지적하면서 환경관리기사들의 준공무원 대우, 환경전문교육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일간보사** (회장·박선규)는 지난 4월 2일 하얏트 호텔에서 일간보사 창간 1주년 및 의학신문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대기오염도 저감 세미나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전성원)는 최근 대도시 공해의 주범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경유자동차 등의 대기오염도의 저감 방안을 주제로 한 「경유자동차 입자상물질 방지기술 국제세미나」를 지난 4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졌다.

한국·독일·미국·프랑스·그리스 등 6개국의 국내외 경유 입자상물질 제어기술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유자동차의 입자상물질 감소기술에 대한 최신의 국제기술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환경관리공단

# 「화성사업소 현황」간담회



환경관리공단(이사장·차성호)은 지난 4월 9일 환경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성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최종방류수를 외부로 흘려 내보내지 않는 첨단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이사장은 최근 화성사업소에서 유출된 폐수유출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폐사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신기술을 도입해 이같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폐수처리기술은 철강회사의 분진을 최종 방류수와 혼합해서 고형화시키는 방법과 고농도 혼합폐수를 순수물로 날려보내는 방식 등 두가지다.

**광주·전남 협의회** (회장·김왕근)는 8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23일 광주지역협의회의 이전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